

‘아주 제 2의 창학^{創學}’을 위한 유쾌한 반란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저는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아주의 역사와 전통 앞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주인 앞에 놓인 막중한 사명과 책임 앞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훌륭한 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같은 꿈을 갖고,
이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의 취임과 아주대의 미래를 축하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호석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 학생, 교수, 직원, 동문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은 제게 이 자랑스러운 대학의 15대 총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영예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내빈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세 분을 짧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기환^{金基桓} 대사님은 제 공직생활 초기에 모셨던 상사이십
니다. 20대 중반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김 대사님을 모시고 일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김 대사님으로부터 저는 일에 대한 소신과 열정, 그리고 헌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모티브를 받았습니다. 32년간의 공직생활 중에 제가 중심을 잡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저의 사표(師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래 전 제가 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던 Lawrence Mohr 교수 부부가 멀리 미국에서 와 주셨습니다. 우연히도 김 대사님과 Mohr 교수는 같은 83세입니다. Mohr 교수님은 세계 학문의 지평을 넓혀주고 학문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스승으로서만 아니라 오랜 친구로 저와 저희 가족 옆에 계셔 주었습니다. 제가 정책학도로서 현실세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의 스승이자 친구인 Mohr 교수 덕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47년 전 서른 둘의 나이에 혼자가 되신 뒤 저와 세 동생을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하셨습니다. 살면서 얻은 저의 작은 성취의 모든 뒤안길에는 자신의 삶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어머니의 희생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저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장(章)에서 이런 분들로 인해 저는 늘 다음 꿈,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주 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색깔과 모양, 크기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들 나이 때 꿈은 대학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해야만 했던 세계 대학은 아주 멀리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 처지에서는 이루기 힘든 영롱한 빛깔의 무지개 같은 꿈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몇 년 뒤 야간대학생이 되었고 어렵게 대학을 다니면서,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매 단계 단계마다 항상 다음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 꿈’들은 제 인생에서 늘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의 실현을 위해 열정을 쏟을 때 참된 보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자랑스러운 대학의 총장에 취임하면서 아주인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주인이 함께 갖는 꿈이 바로 우리 아주가 나아가야 할 비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은 꿈은 ‘아주 제 2의 창학(創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캠퍼스 건립이나 대형 프로젝트의 착수가 아닙니다.

그 동안 아주가 추구해 왔던 가치들을 보다 열린 자세로 혁신하여 향후 아주 50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대가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를 배출하는 산실^{産室}이 되는 꿈입니다. 아주의 브랜드 파워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아주 프리미엄’을 만드는 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한 아주의 역사를 재현하고 보다 발전시켜 명문 아주 100년의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꿈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만든 ‘아주 비전 2023’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손에 잡히는 계획을 만들고 실천력을 배가^{倍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제 2의 창학’을 실천하기 위한 **아주인의 ‘유쾌한 반란’**을 제안합니다. ‘반란’이란 표현이 조금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란은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종래 해왔던 일의 반복이나 남들이 걸어온 길을 그저 빨리 달리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정을 가지고 새 길을 열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특히 세 가지 반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극복하는 반란, 우리 스스로 쌓아온 틀을 깨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즐겁고 유쾌한 반란입니다.

우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령 인구가 줄고 재정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회 진출의 문턱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압력, 빠른 속도의 기술개발과 정보화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제에 선제적일 뿐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반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대학평가에서의 지표개선이나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 연구, 산·학·연·관 협력, 국제화, 대학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른 대학과 확실한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제를 실시하고 학생중심의 교육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던 자랑스러운 아주의 전통과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주의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고 향후 50년의 반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각각의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반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정말

꿈꾸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 대한 변화도 나로부터 시작하듯이 우리가 꿈꾸는 아주의 미래도 나부터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킬 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란은 정형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구성원의 역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이런 반란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수한 신입생의 선발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쏟는 인재들을 키워야 합니다.

창의와 융합이 꽃 피는 학문의 장^場을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주의 강점인 우수한 교수진의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과 성과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연구와 창의가 교육과 연계되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 또한 구성원 모두가 감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반란은 우리 아주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소프트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를 일컫는 ‘숨은 강자’의 차원을 훌쩍 뛰어 넘어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리딩^{leading}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반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대학 본연의 임무 중 하나는 사회변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 첫 걸음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 국가와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반란에서 저는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육은 계층이동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신분의 세습이나 부^富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는 사회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아주대부터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통일시대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 아주대는 전통적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외국의 우수 대학뿐 아니라 국제기구, 국제 NGO, 외국 정부와의 협력으로까지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 사회제도, 행정, 경제, 의료,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아주대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적극적으로 그 준비를 하겠다는 비전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꿈은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그 지평을 한없이 넓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반란을 넘어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반란까지 성공할 때, 우리 아주대는 국내대학과의 비교 수준을 초월하여 명실상부하게 월드 클래스^{world class} 대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주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총장 천거와 선임과정을 보면서 아주의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는 구성원들의 높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한 변화입니다. 꿈은 높게 갖고^{Dream High} 생각을 크게 하되^{Think Big}, 바로 지금 행동으로^{Act Now}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에 옮깁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보람이 되게 합시다. 그런 보람이 우리의 '가치'가 되도록 합시다.

같은 꿈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 아주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열린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합시다. 집단사고^{groupthink}가 아닌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캠퍼스에 꽃 피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지성과 지혜의 전당인 우리 아주대가 앞장서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꿈을 추구하는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대 비전의 실천일 뿐 아니라 분열과 불신, 갈등으로 혼역을 앓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아주인이 앞으로 일으킬 '유쾌한 반란'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저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솔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주인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곧 아주대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제 2의 창학'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보여준 아주의 노력과 성취, 교수진의 창조적 역량, 학생들의 성실과 도전정신,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과 동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인이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면 대한민국 사회에 유쾌한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주가 변화하면 우리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맞서고자 하는 우리의 용기에는 한계가 없고,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아주인에게 용기와 열정을 호소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놓인 쉽지 않은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다함께 가집시다. 그리고 새로운 아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쏟을 것을 다함께 다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의 꿈인 ‘아주 제 2의 창학’이라는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